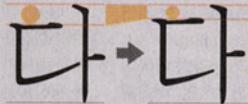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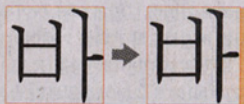
# 활자가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새 글씨체(신문 활자)를 사용합니다. 새 활자는 글자와 단어의 간격이 일정하며, 글줄 사이도 좀 더 띄워 한결 읽기 좋아졌습니다. 자소(字素)높이의 편차를 줄이고 글자 폭을 줄였으며 가로획을 살짝 올렸습니다. 글자 모양이 더 아름다워졌을 뿐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가 보다 분명해져 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글씨체는 국내 최고 서체 전문회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높낮이 차이를 줄여 가지런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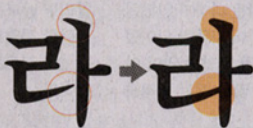
●날씬한 모양으로 정보량도 많아져



1000 x 1000

920 x 1000

●날카로운 삐침을 부드럽게



●돌출 없이 단순 명료하게





[ ] '東亞'

2003 1 1 . 1998 가

가

가가

가



4 , 4  
1

8 5682

가 “ ” “21 ‘ , ’ 가  
”

가 (字間), (行間)  
가 가

909dpi 1200dpi  
가

“  
” 가 “

insight@donga.com

1920년대 4월1일 창간호

• 활자를 납으로 주조하는 '전태식 활자제조법'이 도입되었으나, 글꼴은 여전히 붓글씨체를 다듬은 모양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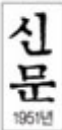
1930년대 이원모체 글꼴

• 1928년 한국신문 사상 최초로 신문 전용글꼴을 공모해 이원모(李原模)체를 1933년 4월1일 채택했다. '명조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공모의 한 종목에 사용.



1950년대 수정된 동아일보 글꼴

• 이 시기 글자의 원도(原圖)는 '활자조각가' 박경서(朴慶緒)에 의해 최근의 명조 계열과 비슷한 글꼴로 바뀌었다. 이응 자에 상투가 생기고 허울의 꼭지가 가로획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 사진식자기가 도입되고 작은 글자를 큰 원도로부터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글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천재적 글꼴설계자인 최정순(崔貞淳), 최정호(崔正浩)가 만든 글꼴이 대부분의 신문사에 보급됐다.

1970년대

• 1970년 3월23일 동아일보 지면이 종래의 '1단 12자 16단 체제'에서 '1단 15자 15단 체제'로 전면 개편됐다. 15단 체제의 효시. 이를 위해 동아일보는 67년6월 일본 임전자형소(岩田字形所)에 한자를, 69년5월 삼화인쇄소(三和印刷所)에 제묵활자를, 70년1월 동화자모사(同和字母社)에 본문활자를 각각 발주.



1980년대

• 1984년 4월21일 새 활자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25% 늘어 국내 신문 가운데 가장 큰 활자를 사용하게 됐다. 새 글꼴은 특히 과학적 검토를 거쳐 자획이 굵고 미려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세로 획이 가로 획에 근접한 굵기를 갖게 돼 가로쓰기 지면에도 알맞은 모양을 갖췄다. • 1988년 8월1일 동아일보의 본문 글꼴이 개선됐다. 새 글꼴의 특징은 본문 글자의 폭을 넓히고 옅색 인쇄에 대비해 글자의 획을 굵게 해 선명성을 살린 것. 이 글꼴은 중앙자모사(中央字母社)가 개발했다.



1990년대

• 1991년 4월22일 동아일보는 본문 글꼴의 크기를 과거 세로 2.5mm x 가로 3.1mm에서 세로 2.7mm x 3.4mm 약 12.8%가 키웠다. 이와 함께 '1단 13자를 12자로, 1단 92행을 90행으로 각각 조정해 가독성을 높였다. • 1994년 4월1일 신문제작 시스템이 전면 CTS로 이행함에 따라 새 아웃라인 폰트 채용. • 1998년 1월1일 전면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



2000년대

• 2000년 1월1일 글꼴의 포맷이 트루타입으로 바뀌고, 글꼴을 종전보다 약 6% 키움. • 2003년 1월1일 동아일보의 새 글꼴 등장.



가

,가 -

가

가

2003

가 .가 가

가



가  
가.

(線形)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

●“ ”



가

... ~ !

가  
가.

가

1

가 (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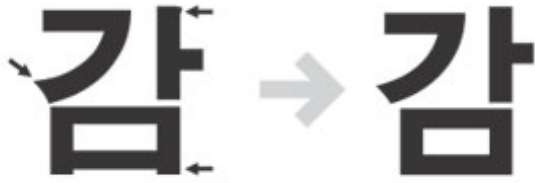
가

( )

● ●

### 1. 단순명료한 글꼴

과거 납활자와 세로쓰기 시절의 불필요한 흔적을 없애고, 가로쓰기와 향상된 인쇄기술에 걸맞는 단순 명료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 2. 뼈대가 튼튼한 글꼴

과거 글꼴은 붓글씨의 흔적에 해당하는 획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나 새 글꼴은 보다 현대적인 느낌과 날자의 획 속에 숨어있는 뼈대를 살려 힘있는 글꼴로 태어났다.



### 3. 날자의 내부 공간이 균일한 글꼴

영문자는 위 아래로 뻗은 획의 모양에 의해 글자를 변별하는 반면, 한글의 경우 글자 내부의 밀도 차이에 의해 글자를 구분하게 된다. 새 글꼴은 내부 공간을 최대한 균일하게 배분해 읽기 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 4. 가로 흐름이 개선된 글꼴

가로 흐름을 방해하는 획을 수평화 하고, 초성의 높이를 상단에 맞추어 글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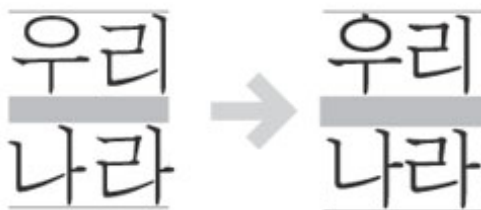
#### 5. 먹도가 높아진 본문

글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기사에 무게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 획의 굵기를 과거보다 다소 두껍게(가로 8.5%, 세로 17%) 만들었다.



#### 6. 좁아진 자간, 넓어진 행간

글자와 글자의 간격, 단어와 단어의 간격은 과거보다 좁히고, 글줄과 글줄 사이의 행간은 넓혔다. 한 면의 전체 글줄은 과거 115행에서 113행으로 줄었지만 글자 사이가 좁아져 훨씬 정갈한 글의 흐름을 유도하고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전체 정보의 양에는 변함이 없도록 했다.



# 11월3일 세계일보가 확 달라집니다

세계일보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제2 창간의 각오와 결의로 제호를 한글로 바꾸고 읽기 편한 새 서체를 사용합니다. 국제-북한소식을 더욱 강화하고 도의 세계와 건전한 가정,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보탬이 될 기획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주 24면을 늘려 평일 섹션 '컬처 & 라이프'와 함께 주말판 'Weekend+'를 선보입니다. 11월 3일 새 단장한 세계일보를 확인하십시오. 유의한 정보와 향기로운 삶의 소식을 가득 담은 세계일보가 아침마다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 한글제호와 가독성-조형미 뛰어난 새 활자 사용

# 세계일보

나라와 세계, 역사를 생각하는 신문의 기상  
을 담은 한글 제호

세계일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제호를 한글로 바꾸고 제목과 본문도 가로쓰기 전용 새 활자를 개발해 사용합니다. 새 활자는 제목이나 본문에서 모든 문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도록 바탕활자의 자간, 행간, 크기와 쉼 등을 새롭게 설계한 것입니다.

• 글꼴의 뿔선과 어긋선이 가지런하여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한 → 한  
구활자      새활자

• 글자의 넓이를 좁히고 글자 내부의 공간을 넓혀 지면이 깔끔하고 정보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 한  
1000×1000      920×1000

• 기존 명조의 부글씨체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세련된 현대적 감각의 디지털 폰트로 변화하였다.

한 → 한

특히 기존 신문 활자의 붓글씨체에서 과감히 탈피, 비주압한 현대적 느낌과 시각적인 조화를 꾀해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글꼴은 편집디자인, 안과 의사, 인쇄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과학적-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일보-(주)디지웨이브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 섹션 '컬처 & 라이프'... 주말판 'Weekend+' 신설

### 섹션 '컬처 & 라이프' 등 주 24면 증면 단행

평일 배달되는 '컬처 & 라이프' 섹션은 생활-문화 정보를 가득 담아 독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종전 주 30면에 그쳤던 문화 생활지면이 앞으로는 섹션과 주말판을 포함해 주 61면으로 확충됩니다. 현행 경제 섹션에서 다루는 기획은 본지에 실습니다.

### 즐거운 주말 'Weekend+'가 함께 합니다

금요일 아침엔 본지(24면)와 함께 주말판(24면)이 배달됩니다. 주말판은 주5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생활-레저 관련 정보와 다양한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낼 것입니다. 첫 주말판은 오는 11월 7일 선을 보입니다.

### 국제-남북한 관련 소식 확대-강화

국제면을 평일 2면에서 3면으로 늘리고 해외 특파원을 주축으로 해 '세계 트렌드' 등 변화의 맥을 짚는 기획을 실습니다. 해외 오피니언에는 해외 논단과 해외만평, 국내 외국인의 생활-문화 체험이 담긴 글을 수시로 소개합니다.

북한 관련 소식을 늘려 '평양은 지금'란에 실습니다. '이곳은 지금'을 신설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달라지는 지역사회 모습, 주거 여건과 주민들의 삶을 심층 조명합니다.



### 참가정과 행복을 가꾸는 주요 기획-연재물

불륜과 파문이 범람하는 시대에 맞서 가정의 소중함과 성숙한 삶을 일깨우는 각종 기획기사를 섹션과 주말판에서 대폭 확충합니다.

- 주제토론 '행복'
- 전원 속의 작가들
- 나의 삶, 나의 행복
- 윤대녕의 주말 연재소설 '블루 레인코트'
- 민화 '별아이 현실엄마'

## 인터넷신문 지면 넘기듯 쉽게 검색... 동영상도 제공

### 세계닷컴, 멀티미디어 지면 서비스

세계일보 지면 그대로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지면 보기 서비스'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PDF 지면보기와 달리 하나의 창에서 모든 지면을 섹션이나 면수별로 찾아볼 수 있어 사용자들이 기사를 찾기 위해 면을 일일이 클릭하던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니다. 스파우스를 누를 때마다 지면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며 스로라인 스크랩 기능으로 필요한 기사를 신문지면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지면상에서 동영상상을 구현하는 점과 온라인 기사스크랩 기능은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계닷컴(www.segye.com)에서 지면보기(IPO)를 클릭하거나, 웹사이트 주소 <http://pdf.segye.com/ipq>로 들어오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일보가 읽기 편해졌습니다

본문용 2종·제목 6종 새로운 서체 개발  
가독성·안정감·응집력 높여 시선 집중  
제호·심벌 변경, 부산 역사·지역성 반영

부산일보가 7월 14일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산일보는 이로부터 지난 1년여간의 준비작업 끝에 개발한 원하고 신통한 한글제호와 읽기 편하고 아름다운 새 서체로 제작에 들어갔다.

부산일보의 한글제호(디자인업체 AGI 개발)는 첨단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모양에, 부산이 가진 상징성과 부산일보의 지향성을 담아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제작된 한글제호는 신문제호가 가져야 할 요소인 독자성, 상징성, 조형성, 가독성, 시별성, 시대성 등을 감안해 역동적으로 만들어졌다. 제호의 세리프(부리)는 물결치는 모양으로 형상화해 포용의 도시로서 부산의 역사성과 역동적인 도시로서의 현재성, 해양수도로서의 지역성을 반영했다.

또 부산일보의 바른 언론의 상(像)을 담기 위해 전체적으로 톨돌하고 단단한 형태로 이미지화했다. 또한 신문지면의 조건을 반영해 판독이 용이한 편평체로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부산일보가 이로부터 선보이는 새 서체(서체 제작업체 유니디자인연구소 개발)는 독자여러분께 기사의 맛과 깊이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

신문에서 서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해 한 서체전문학자는 "잘과 같다"고 했다. 인간의 생김이 있어서 풍이나 물에 비금갈 만큼 중요한 쓸은 혀를 자극하는 특별한 맛도, 눈길을 끄는 이름

다운 장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고 보기좋은 음식이라도 밥처럼 하루 세 끼, 수십년동안 거르지 않고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신문 서체의 변화는 "잘"처럼 읽는 이의 눈길에 쉬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독성과 주목성이 높은, 질서정연한 서체로 이뤄진 기사를 읽으면 그렇지 못한 서체의 기사를 읽는 것보다 기사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다. 읽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대다수 신문사는 아직 세로쓰기 시대의 서체를 일부 변형해 쓰고 있다. 이 같은 임시방편은 신문읽기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판형과 서체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독자의 불편을 감수할 뿐이었다.

전국 신문업계에서 4번째로 부산일보가 개발한 서체는 본문용 명조, 고딕 2종과 제목으로 쓰일 6종이다.

1만8천170자에 달하는 본문용 서체는 단어의 가독성, 생소한 단어의 낱자 판독성, 글꼴 기준선의 일관성 면에서 기존 서체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 기존 2.85포인트에서 4.1포인트로 넓어져 지면이 시원하게 보여 기사읽기가 훨씬 편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3만1천548자의 제목용 서체는 한눈에 잘 읽히고, 단어의 응집력이 향상돼 시선 집중이 용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디자인 역시 세련되게

## 대통령에·대통령에 경제부처 개편 경제부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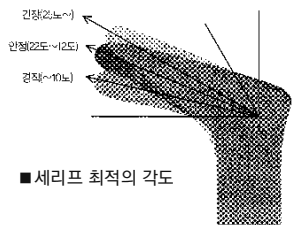
낱자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못해 불편했던 시선의 진행을 개선한 본문 서체(위), 낱자의 크기를 균형있게 수정, 가독성을 높인 제목(아래).

다듬어졌다.

서체 개발을 주도한 유니디자인연구소 폰트디자인팀 김원준 팀장은 "본문용 서체는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모양과 크기 등을 최적으로 구성했고, 제목용 서체 역시 주목성과 판독성이 뛰어난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두 가지 서체 모두 대한민국 신문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글제호와 새 서체와 함께 만들어진 심벌(디자인업체 AGI 개발)은 동북아시아 대표적 하브향으로서의 부산의 국제성과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부산의 영문이니셜 'B'와 'S'를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사용했다.

'B'는 부산의 포용성과 넉넉함을, 'S'는 새를 개 변화하는 부산일보의 유연한 의지를 나타낸다. 'B'자 위에 'S'가 겹쳐있는 형태는 부산을 관통하는 영남의 젓줄 낙동강의 도도한 흐름과



■ 세리프 최적의 각도

낱자가 시작되는 뾰족한 부분을 안정감 있도록 각도를 수정한 세리프(부리).

오목도 알바디의 출렁이는 과도처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부산일보의 역할과 비전을 상징한다.

박기범 편집위원·이호진 기자  
pkbum@busanilbo.com

### ■ 전문가 기고

#### “부일 가로쓰기 전용체

#### 책임 있는 인식의 산물”

사람들은 '안테'와 '고마워'를 같은 어조로 말하지 않고 '불조심'과 '초대합니다'라는 단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역시 동일한 글꼴(서체)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활자가 정보와 의견을 소통하고 보관할 뿐 아니라 감정을 담거나 반응을 유발하는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이나 건물마다 백백이 나뉘는 간판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운 관점에서뿐 아니라 이러한 시각적 전달과 효과의 측면에서 활자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넓은 지면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 역시 활자를 통해 사람들의 읽기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쇄 매체다. 그동안 대부분이 사용했던 글꼴은 예전의 낡은 인쇄방식과 세로 쓰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로, 질 낮은 인쇄상태를 감안하여 외곽선이 과장되고 독서 방향에 맞추어 세로 획이 강조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신문이 가로쓰기로 전환하고 컴퓨터 조판 방식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러한 글꼴이 올바른 기능을 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 노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글꼴을 바꾸는 일을 신중하게 행하는 신문은 많지 않았다.

부산일보가 1년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전용 글꼴은 이러한 일의 필요성과 신문이 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인식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시할판으로 본 부산일보의 새 글꼴은 과거의 불필요한 흔적을 말끔히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했다는 인상을 준다.

본문은 내부 공간이 넓고 반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면을 밝게 할 뿐 아니라 가로로 읽기 시선의 흐름을 한층 편하게 하고 있다. 고딕과 명조 계열 글꼴들은 단순하고 힘있게 디자인되었고 이전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글자들 간의 균형감도 대부분 개선이 되어 독자들은 보다 정돈된 레이아웃에서 기사의 비중과 내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과 함께 바뀐 새 한글 제호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많은 우수한 일간 신문들이 주저하며 용기 내지 못한 일로, 글자에 담긴 미래지향적 의지는 새 시대와 새 세대 독자들에게 더욱 큰 신뢰감을 주리라고 믿는다.

사회는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정책면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외국에 살거나 다녀온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 배려된 공공 표지판과 안내문 같은 사소한 단편을 통해 선진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활 속의 작은 것들이 모여 사회를 바꾸고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신문 글꼴의 변화 역시 한 사회의 문자언어에 대한 표현력을 바꾸고 그에 익숙한 미적 감수성과 소품의 질을 높여준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 열차도 차체보다는 반듯하게 놓인 레일과 이음매의 단단한 고정에 의해 조율하고 안전하게 시달과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다.



송성재 교수  
호서대 디지털문화예술학부



## 釜山日報 釜山日報 부산일보

1949. 7. 1

1988. 5. 6

2004. 4. 7

### 창간 이후 10번째 제호 변경

부산일보 제호는 1946년 9월 10일 창간 이후 모두 10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창간 이후 50년대 말까지 소위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에 걸맞은 호란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무려 7차례나 바뀌었다.

부산일보의 한글제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9년 3월 1일 처음으로 한글제호를 사용했고, 1961년 1월 2일부터는 이 한글제호의 자형(字形)을 약간 손질해 1980년까지 20년간 부산일보의 얼굴이 되었다.

1980년 언론개혁기를 맞아 부산의 유일 신문사가 된 부산일보는 같은해 12월 1일부터 청남 오제봉선생이 제자(繼子)한 한자제호로 변경했다. 이 한자제호는 1980년대 말부터 신문환경에 새롭게 불기 시작한 '가로쓰기'에 발맞춰 1998년 5월 6일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하면서 이 한자제호를 가로쓰기로 바꿔 사용해 왔다.

박기범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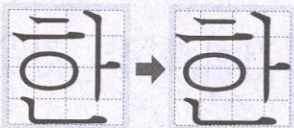
# 읽기 쉽게, 더 재미있게 한경이 확 달라집니다

고품격 종합 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확 달라집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과 독자들의 수요변화에 발맞춰 오는 20일字부터 지면을 혁신해 더 읽기 쉽고 보기 좋은 신문, 더 젊고 활기찬 신문, 고급 정보와 심층 분석이 돋보이는 명품 신문으로 거듭납니다.

## ■ 20일(월)字부터 편집·디자인 혁신

편집·디자인부터 바꿉니다. 활자를 키우고 행간을 넓혀 눈의 피로를 덜어 드립니다.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편집 체제를 도입해 가독성을 높이고 스크랩 하기도 편하게 만듭니다. 젊은 감각에 맞게 제호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고 1면에 마켓인덱스를 신설합니다. 국제·산업·증권 섹션의 편집 스타일을 통일해

경제흐름과 뉴스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자인도 젊어집니다. 국내 신문 최초로 첫 문장 들여짜기를 없애 기사의 독립성을 키우고 다양한 그래픽으로 시각효과를 한층 높입니다.



크기 9.3pt  
장평 89%

크기 9.2pt  
장평 95%

# 새 100년 새 글꼴

## 창간101돌 18일자부터 힘있고 편안한 새서체로

서울신문이 한 세기를 지나 새로운 100년의 첫 돌을 맞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신문은 오는 18일 창간 101돌 기념호부터 읽기 편하고 한층 세련된 새 글꼴을 선보입니다. 새 글꼴에는 독자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서울신문의 진취적 기상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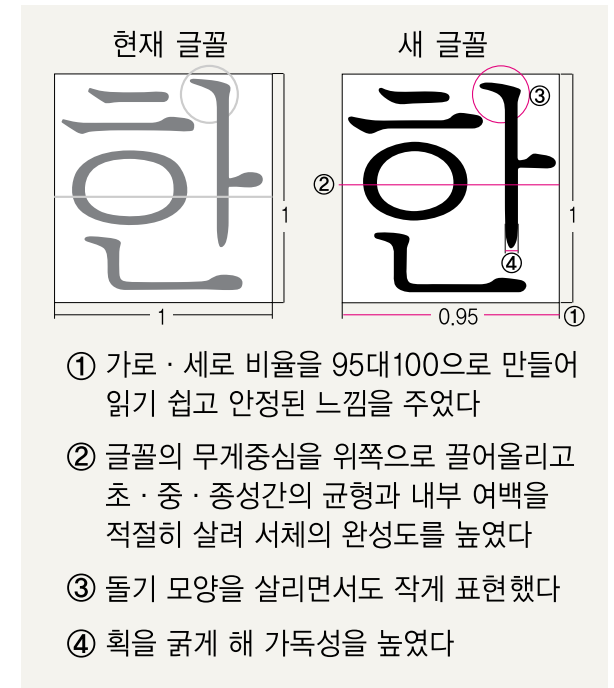
● 새 글꼴은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동안 써온 글꼴은 중심이 아

래로 쏠려 균형감이 떨어지고 무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글꼴은 중심을 위에 뒤 글줄 흐름을 자연스럽게 했고, 획이 굵고 글자도 커져 읽기 편하고 눈도 훨씬 덜 피로합니다.

### ● 새 글꼴은 편안합니다

새 글꼴은 가로·세로의 비율을 95대100으로 개발한 데다 임의로 변형하지 않아 획의 굵기가 일정하며, 글자의 균형과 내부 여백을 적절히 배분해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 새 글꼴은 힘이 있습니다  
획의 돌기를 작고 부드럽게 고



쳐 글자의 특정 부분에 눈길이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제목용과 본문용 글꼴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해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줄사이(행간)를 현행보다 넓히고, 띄어쓰기(어간)와 글자사이(자간)는 좁혀 가로읽기의 가독성도 더욱 높였습니다.

# 중앙일보가 읽기 편해집니다

## 오늘부터 굵은 제목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신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중앙일보의 굵은 제목 글씨체가 한결 읽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명조체는 세련되고 또렷하게, 고딕체는 보다 부드럽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중앙일보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굵은 제목용 고딕체와 명조체 등 2종의 새 서체를 오늘자 지면부터 적용합니다. 본사 디자인연구소와 산돌커뮤니케이션이 2년 반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훈민정음·조선어독본체 등 중세·근대의 빼어난 한글 서체들에 바탕을 두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글씨체를 뽑아냈습니다. 덕분에 서체의 가독성과 판독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같은 종류의 가는 제목용 서체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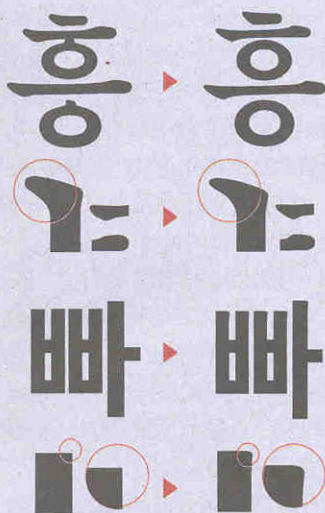
종전의 서체에서는 ‘흥’과 ‘흥’ 글자를 헛갈리기 일쑤였습니다. ‘ㅇ’의 윗부분에 꼭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굵은 서체의 ‘ㅇ’에는 꼭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소간의 부딪침 현상을 없앴으로써 한결 읽기 쉬워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글자의 ‘군살’도 뺐습니다. 두께

를 조절하는 대신 글자의 속공간을 넓혀 간결하고 또렷한 서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아름답고 섬세합니다

투루타입 제작 방식의 수치가 종전 서체는 1000×920이었습니다. 새 서체는 2048×1884로 높여 글자의 선명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금세 확인됩니다. 또 글자들이 번지거나 찌그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단어나 문장을 이루면 한층 조화롭고 미려해집니다. 고딕체 글자는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 편하게 읽히도록 배려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신문 내용은 물론 활자의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독자 여러분께서 양질의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받아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탈네모꼴 ‘한겨레 결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올해 한글날을 맞아 10일 오전부터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를 통해 신문 본문 글꼴인 ‘한겨레 결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한겨레에 접속하면 누구나 이 글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다만, 글꼴의 저작권자인 한겨레신문사와 태시스템 외에는 글꼴을 수정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복사 및 배포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용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각자 컴퓨터의 제어판에 있는 글꼴 디렉토리를 열어 그 속에 이 파일을 복사해 넣으면 파워포인트와 워드 등 모든 MS-윈도 응용 응용프로그램에서 이 글꼴을 불러내 문서를 꾸밀 수 있다. (컴퓨터에 새 글꼴을 심는 방법은 인터넷한겨레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한겨레>는 이미 지난 5월23일 “올해 한글날에 한겨레 결체를 나눠드립니다”라고 밝혔으며, 때가 됨에 따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신문사가 자신의 글꼴을 공개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한겨레 결체는 독자와 국민 모두의 것이 됐다.

국내의 종합일간지는 자기 글꼴을 갖고 있으나, 홀로 쓸 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이런 신문사 관행과 달리 글꼴을 독점하지 않기로 했다. 1988년 5월 국민이 만든 신문사로서, 독자들의 말글살이를 풍요롭게

하자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의 내용으로만 뜻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통해, 더 중요하게는 글자의 모양(글꼴)을 통해 뜻과 감정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바탕체’로 무표정함을, ‘굴림체’로 편안함, ‘궁서체’로 공손

## 한글 1만1172자 등

## 신문사 처음 공개

## 풍요로운 말글살이 계기되길

함을 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글꼴을 하나 더 갖는 것은 표현의 길을 넓히는 것이 되고, 곧장 한글 발전으로 이어진다. 한글 글꼴은 국내에 500여개가 나와 있지만, 영어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좋은 글꼴을 쓴다는 것은 미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글자는 나름의 조형미를 갖고 있어, 좋은 글꼴을 매일 보고 쓰면 자신도 모르게

조형감이 향상된다.

한겨레 결체가 말글살이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글꼴이 우리나라 신문 글꼴 가운데 처음으로 채택된 ‘탈네모꼴 글꼴’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네모꼴 글꼴’을 써야 했다. 이는 낱글자를 ‘일정한 크기의 보이지 않는 네모틀’에 꿰맞춰 글자를 늘이거나 줄인 것으로, 사용자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공한체’ 등 몇몇 글꼴이 나와 있지만 이쪽은 한글 글꼴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결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은 글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높낮이와 넓이가 다른 탈네모꼴 글꼴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면, 한글 글꼴은 또하나의 대륙을 발견한 듯 이쪽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 글꼴은 지난 2월 한겨레신문사가 태시스템(대표 김태정·디자인책임자 김화복)에 의뢰해 제작됐다. 이날 공개된 ‘한겨레 결체.TTF’(2.57MB) 파일에는 모두 1만1172자(한글 자모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전부)와 영문 94자, 특수기호 1천여자가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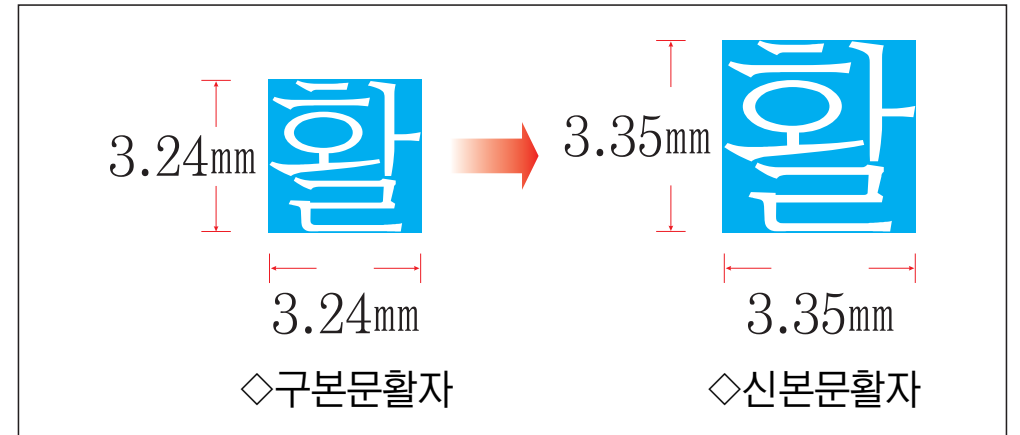
# 세계일보 본문활자 더 커졌습니다

## 오늘부터... 독자 시력보호·가독성 한층 높여

세계일보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세계일보는 신문기사의 본문 활자를 키우고 행간을 넓힌 새 글자를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새 활자는 기존 가로·세로 각각 3.24mm에서 3.35mm 크기로 약 6.9% 더 커집니다. 행간도 종전 4.86mm에서 4.95mm로 벌어져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에 따라 종전 기사 1행에 16.5자이던 글자 수가 15.75자가 돼 기사 양이 면당 원고지 한 장(200자) 정도 줄게 됩니다.

활자 크기의 확대로 기사 양은 다소 줄었지만 세계일보는 ‘양보다는 질’에 주안점을 두고 독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단독 기사를 많이 신도록 힘쓰겠



습니다.

독자에게 친근한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활자 개선으로 독자 여러분의 시력을 보호하고 가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